

[목회자 모임]
주 안에서 사랑하라

2019. 2. 8. 이현래 목사

해가 갔으니까 오늘은 첫해 첫 모임이다. 처음 이야기부터 해보자.
하나님이 땅을 찾아왔을 때는 땅이 없었다고 했다. 물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앉을 자리가 없었다. 땅이 없었다는 말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한다. 농사를 지으러 오셨는데 땅이 없으니까 물 밖에 없고 땅이 없기 때문에 배회했다고 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씨를 뿌리려고 하시는데 땅이 없어서 못 뿌린다.

사역자들은 가서 씨를 뿌리고 싶은데 들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씨를 가진 사람에게는 꼭 땅이 필요하다. 땅이 없으면 자기가 아무리 씨가 있더라도 소용이 없다. 우리도 우리가 만일 씨를 가졌다면 땅이 절실히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대구에서 형제들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형제들이 없으면 누가 말씀을 받겠는가? 내가 공중에 날리고 있겠는가?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다. 들을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창세기 2장에 가면 경작할 자가 없다고 되어 있다. 땅은 있는데 경작할 자가 없어서 안개만 자욱하게 끼어있다고 말했다. 창세기 1장 2절하고 비슷한 말이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씨를 뿌리러 왔는데 땅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여기는 땅이 있는데 경작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담을 그 동산지기로 위임했다. 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말이 결국 경작한다는 뜻이다.

그 경작은 어떤 경작인가? 농부가 씨를 뿌려서 밭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속에 뿌려서 거기서 인격을 생산하는 농사이다. 이 농사는 아주 고도의 농사이다. 물질적인 농사에서 인격적인 농사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단지 혼에 불과하기 때문에 놔두면 기능에 불과하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뿌리면 거기서 인격이 나온다. 사람의 가치가 나오게 된다.

이번에 대구에서 김*근형제가 ‘뇌 과학으로 본 인간’에 대해 특강을 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뇌기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뇌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전부 다 뇌에서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이나 생각이 뇌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잘못 들으면 허무하다.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그냥 뇌밖에 없는가? 의학적으로 보면 이 뇌의 기능이 끝나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사람은 산 혼이라고 알았다. 우리말 개역한글 성경에 “생령이 되니라.”고 번역되어서 사람은 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영이 아니고 혼이다. 혼은 그냥 기능이다. 사람은 만들어 질 때 영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고 혼이다.

이번에 과학 이야기를 들으니 내 생각이 맞았다. 나는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다. 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상하다. 영은 생명인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보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뇌에서 한다는 것이다. 혼이니까 뇌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혼은 기능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지 아직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한다고 했다. 안 먹으면 안 되는가? 다른 동물들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말이 없다. 타고난 대로 살면 된다. 그러나 사람은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산 혼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식을 먹으면 지식이 나오고 생명을 먹으면 생명이 나온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신학이 아직 나는 모르겠는데 선악과에 대해서, 생명과에 대해서 확답이 없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 죽을 것을 왜 만들어 놓았는가? 어떤 사람은 자유의지를 시험하려고 둔 것이란데 나는 그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죽을 독약을 앞에 놓고 시험을 하겠는가?

나는 그것이 시험이 아니고 두 노선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생명나무의 노선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노선이다. 그러면 왜 동산에 그것을 두었는가? 천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다. 일을 하려면 꼭 선악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을 하려면 싸운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다르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 교회에서도 일을 하려면 분열된다. 교회는 일하면 분열되니까 교회는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

옛날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 한분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새로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 일 좀 합시다.' 하고 인사를 한다. 못마땅한데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일 합시다. 일 좀 합시다.'라고 한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을 한지 모르겠다. 그러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러 들어온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초창기의 일제 압박 하에 있을 때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다. 독립운동을 하는 곳이었다. 그때는 독립운동을 하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5.16 이후에 반 독재운동을 할 때 천주교회가 엄청 커졌다. 천주교회가 아무나 손댈 수 없기 때문에 피신하기 좋다. 그래서 천주교로 많이 모여들었다. 카톨릭 농민회라고 있었다. 카톨릭은 성역이고 불가침영역이어서 우리 정부가 뭐라고 해도 까딱하지 않는다. 그때 50만이 되던 카톨릭 인구가 200만으로 늘었다. 그 공로로 김*환 주교가 추기경이 되었다. 군부독재가 카톨릭을 키워준 셈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카톨릭이 필요한 것이다. 교회에 들어와서 운동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교회는 농사를 지어야지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무슨 일을 하려면 회의를 해야 하는데 회의를 하면 분열이 된다. 여러분 해봤을 것이다. 회의해서 만장일치 되는 것이 없다. 다 분열된다. 패가 갈라지기 시작하면 늘 패가 갈라진다.

내가 살던 동네에 김씨, 이씨, 정씨가 살았다. 김 씨가 터주 대감이고, 이씨가 그 다음이고, 숫자로 정씨가 그 다음이다. 그런데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선거가 돌아오면 패가 갈라져서 싸운다. 이것이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가? 6.25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한 동네에서 다른 편 사람을 죽였다. 편이 갈라지는 것이 무서운 일이다.

교회는 편이 갈라지면 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편이 갈라지는가? 일을 하다가 갈라진다. 일하지 않으면 갈라질 일이 없다. 말씀만 공급해야지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일을 하면 세상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는 일이 안 된다.

에덴동산에는 일 할 자가 필요하고, 씨를 이어갈 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갈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하고 일을 할 자는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 천사들이 하는 일은 어디가든지 선악으로 판단해서 심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다. 목사들이 가서 심판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편이 갈라지면 어느 편을 들어야 된다. 이편 들면 저편을 깎게 되고 저편을 들면 이편을 깎게 된다.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떤 문제가 있는 학생이 만나자마자 대번에 ‘목사님은 누구 편입니까?’라고 묻는다. 내가 ‘나는 항상 네 편이지~’라고 하니깐 좋다고 한다. 다 자기 편이 되어 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겠는가? 교회도 똑같다. 일을 하게 되면 목회자가 자기편 인가를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사업체가 절대로 아니다. 일하는 데가 절대로 아니다. 내가 좀 과한지 모르지만 절대로 일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일을 할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 그만큼 성장한 사람이 그만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자기 몸에 과한 짐을 지어 놓으면 부작용이 생긴다. 어린 아이들은 자란 것만큼 걸어가야 되지 억지로 걸리면 안 된다. 아이들이 클 때 어려서 걸음마 한다고 억지로 걸리면 오다리가 되어 버린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오다리로 걷는다. 아이 스스로 누워서 일어나도록 해야 되고, 스스로 기어야 되고 스스로 걸어가야 된다. 그것을 억지로 하니깐 오다리가 생기는 것이다. 키 크게 한다고 잡아당긴다고 키가 크겠는가? 부부가 서로 앉아서 애기 키운다고 잡아당기면 키가 크겠는가?

교회는 생명의 목장이므로 경작할 자가 필요하다.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경작자로 세워 놓았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무엇인가를 생산하도록 그래서 2장 마지막에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한 육체가 될지라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이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땅도 없고 씨도 없게 되었다. 씨를 못 먹었으니 땅도 없는 것이다. 씨 없는 사람은 땅도 필요하지 않다. 농사짓는 사람에게 땅이 필요하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땅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났다 당연하다. 그 동산은 농사짓는 동산인데 씨가 없으니 쫓겨날 것은 당연하다.

성경에 우연히 씨 놓은 것이 아니고 일부러 씨 놓은 것이 아니다.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쫓겨 난 것이지 안 쫓겨 날 사람을 쫓겨났다고 한 것이 아니다. 거기 있으라고 해도 못 있는다. 농사를 못 지을 사람에게 땅만 맡겨 놓고 살라고 하면 살겠는가?

우리나라에서 한 때 브라질로 이민을 한 때가 있었다. 브라질이 땅은 많고 인구는 적기 때문에 농업 이민을 받았다. 그때 우리나라도 가고 일본도 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진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갔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 일본 땅이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 일본 본토보다 더 크다는 말이 있다. 그 사람들이 땅을 사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상 때부터 농사에 질려 난 백성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짓지 않을까 하고 브라질로 이민을 갔으니 농사를 짓고 있겠는가? 다 미국으로 도망을 쳤고, 거기 살아도 농사를 짓지 않는다. 봉제 같은 것을 했지 농사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농사짓기 싫은 사람에게는 땅이 소용이 없다.

씨가 없으니까 아담에게는 땅이 소용없게 되었다. 그래서 가다가 흙을 무엇으로 썼는가? 벽돌을 만들어서 구웠다. 흙은 벽돌을 만들어 구우면 죽는 것이다. 끝이다. 아무 것도 쓸 수 없다. 건축하는데 밖에 못쓰기 때문에 성을 쌓았다.

그들에게는 농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흙을 가지고 구워서 회생불가능 하도록, 다시 흙이 될 수 없도록 구워서 성을 쌓았다고 했다. 이것이 망하는 것이다. 흙도 없고 씨도 없는 인간이 가는 길은 벽돌을 굽는 것 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걱정되는 것이 있다. 아파트를 계속 짓다보니까 논에 아파트를 짓는다. 지금은 농산물이 풍부 하여 농산물이 남아돌고 쌀이 남아도는데 세계가 식량 전쟁이 날수도 있다. 그러면 아파트를 부수고 농사를 짓겠는가? 콘크리트로 해놓아서 그것이 큰 문제이다.

소련이 손발을 들고 자본주의로 전환한 이유가 농산물이 부족해서이다. 인공위성도 앞섰고 과학으로는 미국에 뒤지지 않았는데, 땅이 없으니까 양식이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 밀을 주지 않으면 굶어죽게 되어 할 수 없이 손을 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농업은 기본산업이고 기초산업이다. 농업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좋을 때는 수입을 하면 되는데,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대부분의 농산물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FTA를 할 때는 미국 농산물을 반대한다고 투쟁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 농산물보다 중국 농산물이 훨씬 많이 들어온다. 가깝고 싸고 해서 중국 것이 많이 들어온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 사람이 가져간다는 옛말과 똑같이 묘하게 되었다. 그런데 만일 중국이 틀어막으면 우리는 당장 혼란이 생긴다. 지난번에 사드 문제로 중국

이 문을 닫으니까 당장에 한국 경제가 휘청거렸다.

먹을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중국이 큰소리를 치는 것이 비록 다른 것은 뒤 떨어져 있어도 먹을 것이 풍부하다. 땅이 워낙 크니까 소련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좀 굶으면 되고 좀 적게 먹으면 되고 좀 호화스럽게 살지 않으면 되지 못 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대해 미국이 독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중국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언제든지 협상을 하면 이 사람들은 미리 그림을 그려서 간다. 그대로 하라고 한다. 협상이 아니다. 그런데 중국에게는 그것이 안 통한다. 요즘에 무역 전쟁을 하는데 그것도 중국이 계산해봐서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하지 이익이 안 되면 안한다. 미국이 상대하기 제일 어려운 나라가 중국이다. 그 이유는 중국은 식량이 풍부하다.

그런데 인류는 땅도 잃고 씨도 잃었다. 씨가 없다보니 땅도 없어졌다. 씨가 없다보니 인간을 무시하게 된다. 땅이 인간인데 결국 인간이 무시된다. 이제는 능력이 귀중하고 인간은 기계부품처럼 전략하고 있다. 인간가치를 높이려고 해도 안 된다. 벽돌이 더 중요하다. 성을 쌓으려면 흙보다 벽돌이 중요하다.

교회도 흙에 씨를 뿌려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흙을 구워서 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만드느냐? 이 문제이다. 잘 한번 생각해봐라. 교회도 현시대를 따라가려면 벽돌로 만들어야 한다.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 성을 쌓듯이 교회를 지어야 한다.

인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겨버린다.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긴다. 일을 하다보면 인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기니까 망하는 것이다. 일 잘되게 하다보면 사람이 귀찮은 사람이 많다. 귀찮은 사람이 생긴다.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은 사람이 생기게 된다.

내가 처음 간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니까 조용하다. 그런데 딱 한사람 걸리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그런 대로 편하고 좋은데 강적이다. 겉으로는 웃고 잘하는 여자인데 속에서는 정치를 하고 좌지우지 한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사건이 생기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뒤에서 계속 공작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 교역자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렵고 애를 먹는다. 간경화 걸리고 간암 걸리는 것이 사람 때문이다. 사람만 좋으면 그

럴 일이 없다. 교역자들이 스트레스 받느니 하는데 사람만 아니면 무슨 스트레스를 받겠는가? 내가 사람이 좋으면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내가 사람이 문제가 되면 스트레스를 내가 받게 된다.

불에 뜨겁게 구워 벽돌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내 생명에 도움이 되겠는가? 외형은 될지 모르지만 내 생명을 괴롭게 하게 된다.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당하는 것이다. 나를 청빙하던 장로가 나를 쫓아내었다. 교회 생리가 그렇다. 초청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나갈 때는 그 초청하는 사람 때문에 나가게 된다. 자기가 키워서 자기가 당하는 것이다.

이런 세대에서 씨도 없고 땅도 없는 이런 세대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불러낸 것이 공연히 불러낸 것이 아니고, 거기서 불러낸 것이다. 씨가 없어서 흙을 벽돌로 구워버리는 그런 세대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무엇을 하려고 불러내었는가? 씨와 땅을 새롭게 주려고 불러내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이 내가 네 씨로 번성케 하고 이 땅을 네게 주고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두 가지다. 씨와 땅이다. 그 말은 그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다.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때 나이가 꽤 많았는데도 아들이 없었다. 그 당시는 일찍 결혼할 때인데 가난한 땅에 도착할 때도 언제였는가? 이스마엘을 기다리느라 10년 걸렸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을 기다려 100살이 되었다. 그러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었다.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적은 나이가 아니고 많을 때였다. 내가 계산을 잘 못 하지만 계산해 보면 나올 것이다.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다. 아들이 없는 사람을 불렀다. 그래야 고맙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사할 사람을 부르신다.

어떤 사람은 버릴 것도 없는 데도 나는 다 버리고 왔다고 생각한다. 속으로 참 우습게 생각된다. 버릴 것도 별로 없는데 뭘 버리고 왔다는 건가? 그런 사람은 언제라도 만족이 없다. 내가 버리고 오면 만족이 없다. 없는데서 부름 받은 사람은 감사한데, 있는 것을 버리고 온 사람은 본전을 찾으려 한다. 그래서 만족이 없다.

하나님이 100% 감사를 받으시려면 100% 가난한 사람을 불러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가난한 사람을 찾으시는지 이제 아실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뭘 주어야 감사하다고 하지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좋아하겠는가?

강남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 학생들에게 유명한 메이커로만 한 보따리씩 준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들이 자기들 집에 가면 귀찮게 있는 것들이다. 갖다 놓으면 쓰레기 밖에 안 되니까 고맙다고 생각도 안 한다. 그것을 시골 교회에 갖다 주면 자손만대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미제 연필 한 자루만 주어도 교회에 다 갔다. 우리나라 연필은 깎아 쓰면 부러지고 부러지고 퍼석퍼석했다. 그런데 미제 연필이니 얼마나 좋은가. 고아원 아이들을 부러워했다. 그들은 다 미제를 쓴다.

그래서 고아가 아닌 데도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고아원에 보낸 경우도 있었다. 고아원에서 그것을 좋아했다. 아이들이 불어나야 스폰서가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가 있는 데도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좋은 것을 먹었고 좋은 학용품 썼다. 풍금이 어디 있는가? 학교에 한 대 밖에 없는데 고아원에 가면 다 있다. 피아노도 있었다. 고아원이 나쁜 데가 아니고 고급진 호텔 급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뭘 조금만 도움을 받아도 굉장히 감사하지만 부한 사람에게는 뭘 잘못주면 욕 얻어먹는다. 이런 것을 다 가져왔느냐고 귀찮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아주 약은 분이시다. 다 알고 자기에게 정말 감사할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싫어하는 사람에게 주겠는가?

인생은 감사하는 것이 행복이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이 없다. 이것이 참 이상하다.

아이들도 어릴 때 돈을 푹푹 주어서 키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커서도 항상 수준이 그 수준이다. 그 이하로는 못 산다. 아이들은 꼭 쓸 만큼만 주어야지 절대로 자랑스럽게 주면 안 된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용돈, 점심값, 차비 밖에 주지 않았다. 아침 7시에 나가면 점심 저녁 사먹는 것 두 끼다. 밤늦게 들어오니까 갈 때는 버스타고 가고 올 때는 택시타고 와야 한다. 그렇게 계산해서 일주일씩 주었다. 그랬는데 돈을 아껴 쓰고 안 썼다. 지금도 그렇다.

1학년 들어가서는 장학금을 받아왔다. 그래서 쓰라고 했더니 뒤로 보니까 그 돈이 항상 그대로 남아있다. 내가 준 용돈만 쓰지 그 돈은 안 썼다. 그냥 남아 있다. 그것이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어야지 돈을 푹푹 쓰는 것은 좋은 버릇이 아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다. 원숭이도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면 감사하는데,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면 불평한다고 한다. 조삼모사가 그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다. 아들도 없으니까 불렀다.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 불려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생각하지 아들이 다섯 명이나 있는데 또 아들을 주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생각하겠는가? 괜히 하나님은 또 주어서 키우기만 귀찮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보시고 땅도 없고 아들도 없는 사람을 불렀다.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필요했다. 그래서 씨와 땅을 약속 받았다. 그 씨를 받느라고 백성이 된 것이다. 그 씨는 하늘로부터 온 씨라야 하기 때문에, 바벨로 가는 씨가 아닌 다른 씨라야 하기 때문에 100살이 되어야 했다.

그 전에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회의해서 얻은 것이다. 그 셋이 합해진 것이 이스마엘이다. 둘이 회의한 것은 잘한 것이다. 아주 잘된 최선의 회의를 했다. 하나님과 붙여 놓았는데 이스마엘이 되었다.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둘이 의논을 하였다.

하나님 나라는 의논해서는 절대로 못 간다고 생각한다. 아내와 남편이 제일 가까운 사이이고 떨어질 수 없으니까 의논하자고 한 것이다. 의논해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각자 가는 길이다. 물론 그렇다고 팽개치고 가라는 말은 아니다. 의논해서 둘이 손잡고 갈 줄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앞서가기도 하고 뒤서가기도 하면서 가는 것이지 손잡고 가기는 어렵다. 참된 연합이 있기 전에는 같이 가려고 하면 못 간다.

교회와 같이 가려고 하면 못 간다. 이것도 아주 아이러니한 것이다. 사역자들에게 교회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데 교회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회의를 해서 말씀을 하겠는가? 생각해 보라. 오늘 무슨 말씀을 하면 좋겠는가를 교인들에게 물어봐서 하면 되겠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없으면 말을 못 하는 것이지 그것을 교회에 물어봐서 하면 되겠는가? 내가 앞에 가야 뒤에 따라오지 의논해서 같이 갈 수는 없다. 버린다는 말이 아니다.

전에 형제들이 몇 명 안 될 때, 여러분이 안 가도 나는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여러분이 안 간다고 해도 나는 가야 된다고 했다. 그때 내가 여러분과 같이 간다고 했으면 듣기는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 퇴보한다.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가야지 뒤에 사람을 데리고 가려면 나도 못 가고 그 사람도 못 가게 된다. 둘다 구덩이에 빠지고 만다.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니까 대를 지어서 날아간다. 맨 앞에 가는 놈이 항상 앞에 간다. 그런데 이것을 뒤에 놈과 교대한다. 항상 앞에서 인도하는 놈이 있다. 그놈을 따라서 날개를 펴고 북극으로 먼 길을 날아간다. 어디가도 앞에 가는 것과 뒤에 가는 것이 있어야지 똑같이 나란히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다.

우리 교회도 서로 자리싸움을 할 때가 있었다. 서로 앞자리 앉으려고 밀고 닥치고 하다가 강대상도 하나 깨 먹었다. 나는 그것을 말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앞에 와서 듣고 싶은 사람은 앞에 와서 들어야 된다. 그런데 앞에 와서 듣기 싫은 사람을 앞에 앉혀 놓으면 이 사람은 아주 괴로워한다.

그런데 뒤에 오시는 어떤 분들이 그랬다. 앞에 앉는 사람들만 자꾸 앞에 앉고 뒤에 온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한 번 바꿔보니까 그것이 되는가? 둘 다 안 된다. 앞에 앉을 사람이 뒤에 앉아도 안 되고, 뒤에 앉을 사람이 앞에 앉아도 안 된다. 급하고 갈급한 사람이 앞으로 오는 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를 하면 안 된다. 급한 사람이 앞에 와야 되는 것이다. 앞에 가는 사람들 때문에 뒤에 가는 사람이 따라 온다. 뒤에 온 사람들이 뒤에 앉는 이유가 있다. 적당히 줄아도 되니까 뒷자리가 자기에게 좋은 것이다. 그럴 자리는 뒤에 앉아도 괜찮다. 그런데 앞자리에 앉아서 졸려면 얼마나 힘든가?

보통 교회를 가면 장로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다. 못 자게 하려고 앞자리에 앉힌 것이다. 그런데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일생동안 들어도 만날 똑 같은 이야기를 하니깐 설교를 하면 졸리기 시작한다. 어떤 장로는 뒤에서 보면 전혀 자는 것 같지 않다. 아주 이력이 나서 고개를 딱 세우고 잔다. 장로들은 힘든 것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지 않으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앞에서 들을 사람은 앞에서 듣고, 뒤에서 졸릴 사람은 줄아야지 거꾸로 바꿔 놓으면 안 된다. 졸린 사람을 앞에 앉혀 놓으면 얼마나 지겹겠는가? 못 알아듣는 소리를 계속하면 얼마나 지겹겠는가?

옛날에 의자 없이 집회를 할 때 강대상을 베니어합판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앞으로 계속 밀다가 그것이 터져 버렸다. 그것은 박물관에 보관해 놓아야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어떻게 집회를 하느냐고 하는데 집회가 된다. 다 재미있을 것이 아닌가? 앞에 사람도 재미있고, 뒤에 사람도 재미있다. 교회는 절대로 규칙을 세워서 막으면 안 된다.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을 준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준 것이다. 이 사람이 아니면 받을 사람이 없다. 100살까지라도 믿고 포기할지라도 있는 사람이라야 되지

중간에 약속해 놓고 왜 안 주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도 한 번도 약속을 해보지 않았다. 못 지키면 어떻게 하는가? 못 지켰다고 추궁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왜 약속해 놓고 안 하느냐고 하면 뭐라고 하겠는가? 할 힘도 없는 데 약속해 놓고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누구에게도 약속을 해보지 않았다. 약속을 안 했으니까 배신할 일도 없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땅을 주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땅을 얻었다. 가는 데마다 험통하더라고 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물을 뺏고 빼앗는데 뺏으면 피하고 또 빼앗으면 피하고 힘이 없으니까 늘 그렇게 피해 왔다. 그런데 점점 창대해지더라고 했다. 그때 당시 창대해진다는 말은 양 떼가 많아지고 땅이 넓어진다는 뜻이다. 쫓겨나는데 점점 잘되더라는 것이다.

나도 쫓겨 다니는데 점점 잘 되었다. 밀어내면 좀 더 좋은 데로 가고, 밀어내면 더 좋은 곳으로 갔다. 처음에 한 번 밀어내니까 억울해서 4년간 버텼다. 그런데 한 번 그렇게 해 보고 나니까 나가라면 나가지 하고 아주 쉬워져 버렸다. 그래서 두 번째 C.C.C.에서 그만두라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고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나가라면 나가면 되지 하는데 이상하게 밀리면서 더 잘되는 것이 감사할 일이었다. 내가 쟁취해서 얻은 것과 밀려가면서 받은 것은 인생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

가인은 획득했다는 뜻이다. 쟁취했다는 말이다. 쟁취한 사람은 행복이 없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못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땅을 얻은 셈이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였다. 야곱을 축복한 것도 너무 신기하다. 눈이 어두워서 축복한 것이다. 에서를 축복하려 했는데, 눈이 어두워서 모르니까 야곱을 축복했다. 만일 이삭에게 눈이 밝을 때 축복하라고 했으면 야곱을 축복하겠는가? 당연히 에서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묘하게 눈이 어두워진 다음에 축복하게 하였다. 축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었다.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와 둘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리브가가 엿들어서 이삭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로 딱 정해 놓았는데, 이삭은 자기 생각으로 에서를 축복하리라고 생각했다. 에서가 큰 아들이고 성질도 좋으니까 당연히 아버지로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삭의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막

으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다. 우리를 실수하게까지도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쓰이든 저렇게 쓰이든 쓰이기만 한다면 그게 축복이 아닌가? 이삭은 어떻게든 끝까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마지막 실수까지도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삭은 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는데 야곱은 모든 것을 잃고 요셉을 얻은 사람이다. 그가 연단을 받고 모든 것을 잃은 이유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을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요셉과 야곱은 한 사람이다. 야곱은 연단을 받고 요셉은 통치를 한다. 연단 후에 세상을 통치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놀라운 계획이고 놀라운 방법이다. 그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말이다.

이스라엘의 신앙 속에 그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통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도 그 안에서 부름 받았다. 왜 우리의 조상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안에서 불렀기 때문이다. 혈통으로만 난 것이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의 혈통으로 우리를 낳은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모세 시대가 온다. 모세는 백성을 구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사람이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얻기 위한 것이다. 구속은 나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출애굽은 구속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을 구속한 역사이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와서 완성이 되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구속하러 왔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였다. 이 죄라는 문제가 애매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이 죄는 구속받아야 할 죄인데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하니 까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할 사람이라고 할 때 저희 죄에서 죄가 무엇인지 물론 율법적인 죄도 있고 많이 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을 구속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지은 죄를 구속하려고 죽으실 필요까지는 없다. 우리가 회개를 해도 되는데 왜 죽어야겠는가?

우리가 회개를 해도 안 되는 죄가 있다. 그것이 동산을 떠나 온 죄이다. 동산 안에서는 죄라는 말이 없었지만 밖에 나오면 그것이 죄이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자기 위치를 이탈한 그것이 원죄이다.

구속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원 위치로 되돌리는 것이다. 원 위치로 되돌리는 것이니까 죄라고 표현되었지만 이 죄는 결국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이탈한 죄이다. 이탈했다고 하니까 쉬운데 죄라고 하니까 모호하게 섞여서 혼란스럽다.

영어는 sins와 sin을 구별해 놓았는데 그렇다고 해도 sin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알기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행한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본성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도외시하는 것 같다. 우리 본성 속에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도 한 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이니까 모순에 빠진 것이다. 만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그렇다. 멀고도 가까운 당신인지 가깝고도 먼 당신인지 그런 사이이다. 견원지간 사이이다.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와도 안 된다.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모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막상 하나님이 온다면 큰일이다. 막상 하나님이 와서 자기를 꼭 잡고 안 놓아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이 참 묘한 생활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일은 우리를 구속한 일이다. 구속을 해주는 것 같으면 간단하다. 어떻게 해주는 것 같으면 간단하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일이다. 그 안에서 구속이다.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아니다.

구속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아니하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엡1:7).”고 했다. 그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받은 것이지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아니다. 따로 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이 구속을 어떻게 해 주는 것으로 알았다. 교리 상으로 보면 구속을 받은 것인데 받은 흔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서는 동의가 안 된다. 믿음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강조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믿어라.’고 하는데 동의가 안 된다. 고맙기는 하지만 동의가 안 된다. 그런데 쉽게 동의한 것처럼 사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그런 사람 속을 모르겠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동의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었다.

내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 자신은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이다. 한 때는 그것도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이 다 묵인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다 봐주었다는 것이다. 봐주었으니까 고맙기는 한데, 내 안에서는 동의가 안 된다. 차라리 어디 가서 벌이라도 받고 오면 편하다.

그런 면에서 천주교 사람들이 더 좋다. 고해성사를 하면 벌금을 내린다. 신부님이 들어보고 교회 청소를 일주일 하라고 하면 해결되는 것이다. 조금 더 중하면 한 달간 청소하라고 하면 해결된다. 일단은 내가 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주었다고 하니까 고맙기는 고맙지만 뭐가 있어야지 만날 그 생활이다. 똑 같다. 죄를 지으면 용서해준다는 버릇이 되어버린다.

‘그 안에서, In Christ’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 있지 않고서는 구속했다는 약속은 있지만 우리에게 실현이 되지 않는다. 그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현된다.

그 안에는 죄가 없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 그분 안에서 발견된 나는 죄가 없는 것이다. 죄가 있는 것을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하는 것이다. 하도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한 것이다. 분명히 도둑질 한 것을 알면서도 너는 도둑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과 똑 같다. 그러니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는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간과하고 넘어간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고전1:30).”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전1:30).” 그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다. 내가 그 안에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지 모른다. 다른 것만 알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봐야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데서는 알 수가 없다.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믿는다고 해도 제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 한 말로 말해서 안 된다.

나도 해보았다. 나도 애를 많이 썼다. 안 되었다. 내가 안 되는 것을 보니까 남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 되더라도 내가 안 되니까 모든 사람 속에 나는 안 들어간다. 나에게 정말로 좋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것이다.

내가 언제 세상을 다 돌아보고 알겠는가? 베드로가 언제 논어 맹자 다 읽어보고 구원을 얻을 이름을 예수 밖에 없다고 하겠는가? 그 사람이 학자인가? 뭔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 이라(행4:12).”고 한다.

그것이 무식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무식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진짜이다. 진짜는 어디를 가도 진짜이다. 2000년 전에도 진짜이고, 지금도 진짜이다. 영원히 진짜이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구속이라는 것을 따로 받지 않는다. 따로 받을 것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하겠는가? 법적 거래를 하겠는가? 상업적인 거래를 하겠는가? 그분 안에 있는 것만, 그분 안에 있는 나만 진짜 나이고 그 안에는 죄가 없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불의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원래 지어 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원래 그 인간을 찾아야 씨를 뿌리신다. 그 사람이 아니면 상대가 안 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친구약을 통틀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했는가? 상대해도 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해도 안 되는 것이다. 발이 비틀어진 사람은 아무리 바로 걸어도 바로 가지 않는다. 발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바울이 언제 전 세계의 인구를 다 조사해 보고 한 말인가? 한 사람을 보면 다 안다. 발이 비틀어진 한 사람을 보면 모든 발이 비틀어진 사람이 다 저렇다고 알아야지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겠는가?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한 사람만 있어도 진리이고, 열 사람이 있어도 진리이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 안에 있는 거룩!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 예수 안에 있는 지혜! 그것을 우리가 누리니까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고전1:31).”고 한다. 이 말도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른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 의로움도 내 것이 아니고, 구속함도 내 것이 아니고, 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닌데 자랑이 된다.

내가 예수 밖에서 예수를 자랑하면 결국 자기모순에 빠진다. 여러분들이 많이 해 보았을 것이다. 설교를 하면 예수를 자랑한다. 그런데 내 밖에 있는 예수를 자랑하면 결국에는 모순에 빠진다. 나는 누군가? 여기에 빠진다. 저 사람은 여기 있다 했는데 나는 무엇이냐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자기모순에 빠진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나를 자랑하면 당당해진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나를 자랑하는데 당당해진다. 안 해본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면 안 된다고 한다. 아니다. 자기를 자랑하면 더욱 당당해진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많아진다.

알고 보면 사람은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것이다. 무슨 재미로 사는가? 자기 자랑하는 재미로 산다. 그런데 자랑도 아닌 것을 자랑하면 욕 얻어먹는다. 돌아서면 다 욕한다. 자랑도 아닌데 자랑한다고 욕을 얻어먹는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자랑을 해도 돌아가면 마찬가지로 영원한 자랑이 안 된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나는 영원히 자랑할 수 있다. 그것은 자랑할수록 더 행복하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라고 한다. 여러분은 마음껏 자랑하라. 마음껏 자랑하는데도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으면 된 것이다.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랑한다고 해도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 행복한 것이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행1:8참고)였다. 그분의 증인이 된다. 내가 나를 자랑해도 그것이 그분에 대한 증인이다. 나를 자랑하는데 그것이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는 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자랑하면 그분이 나타난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타난다.

그러니 지겹게 남만 자랑하고 다니겠는가? 사도들이 자랑스럽게 다닐 때 남을 자랑하느라고 돌아다니겠는가? 사역자들이 말하는 것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말하는 것이다. 남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다. 무슨 설교를 해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설교하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하는 줄 아는가? 설교를 하던 사람이 설교를 안 하면 못 견딘다. 터지지 않아서다.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인데 나를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는 나만 자랑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해도 행복하다. 누구도 할 말이 없다. 그 안에 있는 나를 자랑하면 누구도 할 말이 없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도 좋은 세계로 이끌었다. 내가 아브라함과 사귀어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다.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왜 그렇게 그분이 좋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복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100살 먹을 때까지 자식은 없고 순종도 없고 믿음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마지막에는 그것들이 다 없어졌다. 믿음, 순종이 다 없어졌다.

그런데 그때에 와서 내년 이 맘 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했다. ‘실없는 소리 하십니다. 하나님도 노망하셨습니다.’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아들을 낳았다.

그런 일이 너무 재미있다. 허황한 일 같은데 너무 재미있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니까 너무 재미있다. 전혀 발견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 오히려 싫을 텐데 그 안에서 발견되니까 재미가 있다. 사실 알고 보면 재미에 끌려서 왔다.

나는 뭘 찾아서 애를 쓰는 일이 없다. 원래 몸도 약하니까 뭘 끝까지 추구하지를 못했다. 그러면 잠을 못 잔다. 잠을 못자면 당장 나에게 지장이 오는데 하겠는가? 못한다. 지금도 그렇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면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아예 내일로 미루자고 한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자고 생각한다. 그래야 잠을 자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잠을 못 잔다. 심장이 튼튼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나 같은 사람은 불가능하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다고 하기는 그렇고 이끌려 왔는데, 내 힘으로 애를 써 본 적이 하나도 없다. 초기에 좀 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다. 기도원도 가보

고 부흥회도 가보았는데 나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찍이 포기했다. 못 받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다. 대단했다. 목이 다 쉬어서 그러는데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다.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만 났다. 그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안 되는가?’ 이 생각만 났다. 아무 생각이 안 났다. 일찍 포기하기 잘했다. 나 같은 사람이 거기에 매달렸으면 진즉 죽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재미있다. 익사이팅(exciting)한 재미가 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너무 재미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을 그렇게 선명하게 부각시켜줄 수가 없다. 좋은 나쁜 것 간에 그것을 확 열어서 보여주니까 너무 신나고 재미있다.

아이들이 어디를 가면 다 새로운 것이니까 바깥을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가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많기 때문에 다 재미있고 귀중하다. 내가 아브라함을 보고 좋아했는데 어떻게 예수에게로 올 줄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나는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서 무엇을 찾아보려고 뒤적이는 사람도 아니다. 알고 보면 나는 하나님이 안 주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찾겠는가?

나는 놀러가서 보물찾기를 해도 못 찾는다. 소풍을 갈 때마다 하는데 나는 한번도 찾아본 적이 없다. 내 눈에는 아무 것도 안 보인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두 개씩 찾아온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는 안 보인다. 지금도 우리 집에서 집사람이 무엇을 어디에 두면 나는 못 찾는다. 아예 못 찾고 포기한다. 놓는 곳에 두라고 하는데도 우리 집사람은 성질이 아무데나 두니까 어디다 두었는지 못 찾는다.

하물며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을 어떻게 찾겠는가? 숨어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는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그렇지 나는 그분을 찾을 수가 없다. 찾는다는 것이 엉터리로 찾는 것이다.

예수! 이 분을 만나게 하려고 나를 우리나라 최남단 노화도 땅에서 불러내셨다. 나는 그때 이 분을 전혀 몰랐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몰랐다. 한참동안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특별히 관심을 가질 일이 없었다. 나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도저히 소화가 안 되었

다. 목회를 하면서도 나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소화가 안 되었던 모양이다. 그랬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갔겠는가?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그러시지 않겠는가? 내가 그분을 쫓아갔으면 내가 피곤할 때 손을 놓아버리면 그만이다. 그분이 나를 붙잡았으니까 피곤하다고 손을 놓겠는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아주 편안한 것이다. 내가 내 안에 두고 관리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웠던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고 관리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운가? 내 뱃속에 든 아기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내가 예수님을 품고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안하다. 내가 예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관리하니까 더 편하다. 그래서 그분이 되는 대로 되는 것이다. 그분이 어디로 가시면 나도 가는 것이고, 그분이 높아지면 나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분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너무너무 좋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길을 마련하셨다. 딱 정확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예수, 정확하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있는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을 보아도 어디 구석 일이나 조금 알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른다. 나도 4년 동안 성경을 배웠다. 성경 강의를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들을 때는 참 좋은 말씀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8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 아주 열성을 내서 했는데 뭘 말했는지 지금은 하나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내게 남은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게도 남은 것이 없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미안하다. 그래도 매주 말씀한다고 했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 안에 있는 나! 그 안에 있는 나! 그분 안에 있는 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는 나!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 나!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지키겠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위하겠는가? 그렇게 큰 분을 내가 어떻게 모시고 살겠는가? 정말 겁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거나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정말 겁 없는 생각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는가? 여자들은 시어머니 모시기도 어렵고, 시아버지 모시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겠는가? 자매님들은 한 번 생각해 보았는가? 시부모 모시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는가?

끝없는 이야기이다. 우리 끝없이 이야기하고 살자.

감사합니다.